

시각·청각장애인 안전교육 교범을 펴내며....

장애인은 신체적인 부자유로 인해 많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재 등 재난사고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신체에 미치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장애인 인권헌장에는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도 이처럼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조성에 앞장서고자 그동안 미약했던 장애인 안전교육을 활성화하여 사회가 장애인 안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특화된 안전교육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장애인용 안전교육 교범은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기본 상식 등을 점자책과 병행하여 제작하였으며,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여러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반인과 장애인 구분없이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08년 12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정 정 기

/ 목 차 / Contents

제 1 장 위기대처 이렇게 하세요!

1. 화재감지 및 대피요령
2. 불이 났을 때 행동요령
3. 연기 속 대피요령
4. 불이 난 건물 속에 갇혔을 때
5. 옷에 불이 붙었을 때
6. 화상 시 응급처치
7. 상처의 유형과 처치방법
8. 코피 응급처치 요령
9.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10. 황사 발생 시 행동요령

제 2 장 안전사고 이렇게 대비 하세요!

1. 119 신고요령
2. 도움이 되는 소방시설
3. 담뱃불 안전조치
4. 주방 안전수칙 준수
5. 전기 안전하게 사용하기
6. 가스 안전하게 사용하기
7. 질식사고 예방하기
8. 자동계단 및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9. 교통 안전수칙

/ 목 차 / Contents

제 3 장 생활 속 안전 점검

부 록

1. 장애인을 위한 위험요소 사전체크
2.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3. 장소별 사고 예방대책
4. 장애인 재난대피계획 점검표

1. 장애인 안전교육 방법
2. 불과 화재의 개념
3. 소방관서에서 하는 일
4. 서울시민안전체험관

제 1 장 위기대처 이렇게 하세요!

그림

상황 1 화재감지 및 대피요령

화재를 감지하는 방법

- ◆ 불이 났다는 사실을 가능한 빨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불로 아
들은

화재를 알리며 피난했으나, 청각
장애인인 김씨

2008년 10월
충남 예산

화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연기가 보이고 따가워져요.

눈

무엇인가 타는 냄새가 나요.

코

뜨거움을 느껴요.

피부

귀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와
비상벨 소리가 들려요.

입

이렇게 해서 불이 난 것을 알게 되면,
'불이야!'라고 큰 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요.



◆ 대피계획 세우기

평소 가정에서 재난대피계획을 세워두고, 가족과 함께 대피훈련을 실시하세요. 대피계획을 숙지해 두는 것은 불이 났을 때 우리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한가지 입니다.

※ 집이나 다른 어떤 장소에 있던지 항상 가까운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해 둡니다. 이러한 습관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구해 줄 것입니다.

< 대피계획 세우기 >

1. 가족 모두 모여서 간단한 집 평면도를 그립니다.
2. 각 방에서 나갈 수 있는 비상통로를 2개 이상 정하여 평면도에 표시합니다.
3. 대피 후, 밖에서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합니다.
4. 불이 났을 때에는 절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다.



장애인 대피정보의 4요소

어떤 응급상황인가?
(인지)

어디로 대피하나?
(피난로 확인)

도움이 필요한가?
(장비, 도우미)

내가 필요한 도움은?
(언제, 어떻게)

▣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피계획 세우기

1. 화재인지

시각장애인은 화재경보를 들을 수 있고 비상방송을 통해 상황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런 것을 위한 특별한 장치나 부가적인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2. 피난로 찾기

① 이용가능한 피난로가 있는가?

- 장애인은 피난로를 통해 대피구역 또는 바깥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시각장애인은 건물의 피난로가 있다면 알아둬야 하고, 이용 가능한 피난로가 없다면 개인별 재난대피계획으로 대체 경로나 방법들을 모색해야 합니다.

② 가장 가까운 피난로가 어디이며, 사용은 가능한가?

- 출구에는 점자 블록 등 촉각적인 표시가 되어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은 시각장애인들이 어떤 방향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어느 피난로가 이용가능한가?

- 가장 가까운 출구의 위치를 알려주는 점자 블록은 모든 통로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새로 입주한 시각장애인들에게 모든 이용 가능한 통로를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선진국의 화재경보 시스템

광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방향지시 음향시스템은 안내방송 시 다양한 높낮이와 음량으로 쉽게 출구를 찾을 수 있는 청각신호가 발생되며, 이 소리를 사람들이 듣자마자 직관적으로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3. 시각장애인의 대피시 도우미 활용

① 시각장애인이 피난로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필요한가?

- 모든 시각장애인이 피난로를 통해 스스로 대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개인별 재난대피계획이 필요합니다.
- 대피계획에는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도우미를 적어도 2명 이상 지정합니다.

②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 미리 도우미(건물내 사람, 친구, 동료 등)를 지정하고, 전화, PDA, 이메일 등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정합니다.
- 필요한 도움이 언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제공 받을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 피난로를 설명하고, 팔 또는 어깨를 대주면서 피난로에 있는 문을 미리 열어줍니다.

▣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피계획 세우기

1. 화재인지 : 청각장애인들은 화재경보 및 비상방송을 들을 수 없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시각경보장치가 어디에 설치 되어있는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들은 재난경보에 대한 방법들이 대피계획에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선진국의 재난경보를 위한 장치와 방법

- 문자를 제공하는 전광판 : 화재경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재난시 섬광 빛 등 다양한 형태로 표시 됩니다.
- 진동침대와 진동베개 : 잠을 자고 있을 경우 재난인지가 어려운 청각장애인에게 재난시 침대와 베개가 진동하여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전신타자형 통신장치 및 텔레비전 자막방송 등도 경보장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피난로 찾기

청각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시각경보장치 등을 통해 재난이 한차례 이상 인지된다면 건물에서 대피하는 수단과 방법은 일반인과 동일합니다.

☞ 엘리베이터 내 비상버튼

청각장애인들은 엘리베이터 내에 비상용전화기와 긴급신호전송기 둘 다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비상용전화기가 연결되었는지 그 신호가 건물 내로 가는지 건물외부로 가는지와 누가 응답하는지 등을 알아둬야 합니다.

3. 청각장애인의 대피시 도우미 활용

한차례 이상 재난이 통지된 청각장애인들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출구 및 방향 표시를 보고 건물에서 사용 가능한 일반적인 대피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소리 없이는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명이 어두운 지역에서는 도우미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상황 2 불이 났을 때 행동요령

불이 났을 때 대피가 가장 우선입니다.

※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위에 빨리 알린다.



재빨리 대피합니다.



119에 신고하세요

주택화재 발생으로 가족 3명은
무사히 대피하였지만 지체장애인은
2008년 2월
노원구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 알아보시다

▣ 주위에 불이 난 사실을 빨리 알립니다.

“불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거나(시각), 비상버튼을 누르고(시각·청각) 대피합니다.

▣ 집 밖으로 재빨리 대피합니다.

불이 발생하면 가능한 빨리 화재장소에서 대피하여야 합니다. 무섭다고 숨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끼는 물건을 챙기려고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고 또한 불을 끄려고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면 다시 화재장소로 들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비상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였다면 119로 신고합니다.

불이 난 곳(주소나 주변의 큰 건물 이름 등)을 또박또박 말해야 합니다.

소방관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평상시 주위에 있는 큰 건물 등을 알아 둡니다.

상황 3 연기 속 대피요령

뜨거운 연기를 마시면 아주 위험합니다.

※ 연기 속에서 안전하게 탈출하기

주택화재로 집에서 혼자 있던 정신지체 장애인이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쓰러졌고

2007년 7월
강북구



⇒



⇒



⇒



손수건·옷 등을 이용
코와 입을 보호

자세 낮추기

다른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

연기를 들이 마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이 났을 때 주요한 사망원인은 연기에 의한 질식입니다. 연기 속에는 유독성 물질이 많아 기도와 폐에 손상을 주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기를 마시면 아주 위험합니다.

▣ 연기를 피하는 방법

1. 화재시 연기는 위에서 내려오고 깨끗한 공기는 바닥으로부터 30cm~60cm 사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기가 보이거나, 냄새가 나면 옷가지를 사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추고 재빨리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2. 대피시 방화문은 반드시 닫고 건물 밖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대피할 때 문을 닫으면 다른 곳으로 불이 번지지 않기 때문에 열과 연기를 막아 대피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3. 방문이나 비상구를 열고 나오기 전에 손등을 이용하여 손잡이를 살짝 짚어보세요. 손잡이가 뜨거우면 불이 가까운 곳까지 번졌다는 뜻이므로 이럴 때에는 방문을 열지 않도록 하고, 다른 출입구를 사용하여 대피해야 합니다.

상황 4 불이 난 건물 속에 갇혔을 때

문밖에 화재로 인해 대피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실내에 갇혔을 때의 행동요령

주택에서 발생한 불로 시각장애인 노모가 미처 대피하지 못함

2008년 9월
전남 무안



손잡이가 뜨거운 경우는
나가지 않고

⇒



창문이나 문틈을 수건
등으로 틀어막는다.

⇒



창문에서 수건 등으로
구조를 요청한다.

불길이나 연기 때문에 대피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문 손잡이를 만져보고 뜨거운 경우 실내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1. 손잡이가 뜨거운 경우 문밖에는 불이 있다는 증거이므로 문을 열지 말고 다른 출구를 찾거나, 다른 출구가 없을 때에는 침착하게 아래의 요령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모두 막는다.

1. 연기가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이나 문틈에 담요, 시트, 수건 등을 물에 적셔 틈을 막습니다.
2. 물에 적신 손수건이나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낮은 자세를 취하여 가능한 연기를 피해야 합니다.

▣ 창문을 통해 구조요청을 합니다.

1. 눈에 잘 보이는 수건이나 옷가지 등을 흔들면서 구조요청을 합니다.
2. 무섭더라도 참을성 있게 구조를 기다려야 하며, 함부로 창 밖으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상황 5 옷에 불이 붙었을 때

옷에 불이 붙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당황하여 뛰면 안 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보일러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내부 60㎡를 태우고 17분 만에 꺼졌다.
2007년 10월
광주 북구



멈춘다(STOP)

⇒



엎드린다(DROP)
※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



구른다(ROLL)

화재로 인해 옷에 불이 붙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1. 멈춘다

옷에 불이 붙었다고 당황하여 뛰게 되면 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 바닥에 엎드린다

열이 호흡기로 침투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얼굴을(눈, 코, 입) 두 손으로 감쌉니다.

3. 몸을 좌·우로 뒹굴어서 불이 꺼지도록 합니다.

옷에 불이 붙었다고 당황하여 뛰게 되면 불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멈추고 엎드리고 굴러서 불을 꺼야 합니다.

※ 주위에서 옷에 불이 붙은 사람을 발견하거나, 위에서 알려준 내용을 실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요나 불에 잘 안 타는 것을 덮어서 불을 끌 수 있도록 합니다.

상황 6 화상시 응급처치

뜨거운 것을 다룰 때에는 한 번 더 조심

※ 일상생활 중에서도 뜨거운 열에 의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 화상 사고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찬물에 열기를 식힘



물집을 터뜨리지 않고
반지나 옷 등을 조심스레 제거한다.



깨끗한 거즈를 덮고
병원으로 간다.

화상의 정도에 따른 분류 및 응급처치

▣ 화상 응급처치 방법

- 가. 화상 부위를 10분~15분 정도 흐르는 찬 물로 식힙니다.
- 나. 1도 화상인 경우, 상처부위를 가볍게 닦고 화상용 연고를 발라 줍니다.
- 다. 2도 화상 이상인 경우, 깨끗한 거즈로 덮어 병원으로 갑니다.
- 라. 화상부위에 옷이 달라붙었을 경우 무리하게 벗기지 말고 가위로 잘라 냅니다.
- 마. 물집이 생겼으면 터트리지 않습니다.

▣ 화상의 정도

1도 화상 : 피부가 빨갱게 되고 통증이 있다.

2도 화상 : 피부가 부어오르고 물집이 생기며 심한 통증이 있다.

3도 화상 : 피부가 회백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며, 감각과 통증이 없다.

※ 119에 연락하여 신속하게 응급실로 갑니다.

상황 7 상처의 유형과 처치방법

추락이나 낙상사고는 출혈과 골절의 부상을 가져온다.

장애인이 집안에서 넘어져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친 사고로 상처부위를 드레싱 한 후 병원이송

2006년 7월
중랑구

◆ 출혈시 응급처치



상처부위를 깨끗이 씻는다



지혈시킨다



소독한다



붕대로 감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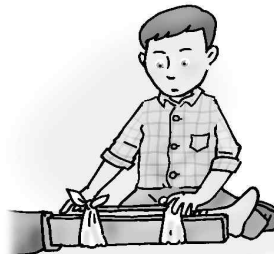
◆ 골절시 응급처치



환자를 안정시킨다



출혈시 지혈시킨다



부목을 대고 고정시킨다



병원으로 옮긴다

추락이나 낙상사고에 대한 응급처치법을 알아봅시다.

▣ 출혈 응급처치

- 출혈부위를 직접 손으로 압박하여 지혈하는 방법으로 출혈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소독거즈를 출혈부위에 덮은 후 탄력붕대를 이용하여 출혈부위가 압박되도록 감아 줍니다.
- 탄력붕대가 감겨진 출혈부위를 계속 관찰하며 출혈이 지속되면 소독된 거즈나 패드를 추가로 덮어 주거나 압력붕대로 한 차례 더 감아준다. 출혈이 계속된다고 현장에서 감은 압력붕대를 풀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출혈을 멈추기 위한 지혈대 사용은 조직의 괴사가 발생되므로 마지막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 골절 응급처치

- 즉시 119에 신고한 후 주위가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환자를 가급적 움직이지 않습니다.
- 발가락이나 손가락을 가볍게 만져 감각이 있는지 물어보고 감각이 없다면 신경계나 척추손상의 우려가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출혈이 있으면 지혈시키고, 부러진 곳을 부목으로 고정시킵니다.

상황 8 코피 응급처치 요령

코피 응급처치 (지혈방법)



손가락 끝으로 양쪽 콧방울을
세기 5~6분간 누른다.



거즈나 티슈를 이용 손가락
두께로 말아 윗입술과 윗니
사이에 끼워 넣어서 혈관을
미리 차단해 준다.



얼음 주머니나 비닐에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을 이용, 목 뒷덜미나
이마부분을 함께 냉찜질 해 준다.

< 코피 응급처치 요령 >

①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여 줍니다.

코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머리를 뒤로 젖히면 코피가 목구멍으로 흘러 들어가 위나 장에 부담을 주어 구토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② 손가락 끝으로 양쪽 콧방울(콧대 중에서 중간쯤으로 뼈가 아닌 말랑말랑한 부분)을 세게 5~6분간 누릅니다.

③ 콧잔등에 얼음주머니를 대면 지혈에 도움이 됩니다.

얼음주머니를 만들어 콧잔등에 2~3 분간 올려놓습니다. 찬 얼음의 영향으로 콧구멍 속 점막의 모세혈관이 수축되어 코피가 빨리 멈추게 됩니다.

④ 입에 있는 피는 반드시 뱉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양의 피가 목으로 넘어가면 기도 폐쇄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⑤ 찬 물수건을 목 뒤에 대줍니다.

어느 정도 지혈이 되면 목 뒤에 찬 물수건을 대고 천천히 마사지를 해준다. 코피로 인해 긴장한 마음을 달래 주면서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황 9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분! 서둘러 뛰어 나가면 위험합니다.

※ 집안에 있을 경우의 행동요령



자신과 가족의
안전이 최우선



켜져 있는
불을 꺼야 한다.



서둘러서
뛰어 나가지 말자!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하자

집안에 있는데 지진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

- 식탁이나 책상 밑에 들어가서 그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합니다.
 - 식탁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 작은 지진이라도 즉시 불을 끄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 대지진 발생시에는 소방차에 의한 화재진압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평소부터, 작은 지진이라도 불을 끄는 습관을 익히도록 합니다.
 - 집 밖은 위험이 가득, 먼저 안전을 확인
 - 지진 중에 서둘러서 밖으로 뛰어 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지므로 대단히 위험합니다.
 - 블록담, 기둥, 자동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은 물건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에서 안 됩니다.
 - 비상시의 대피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둡시다.
 -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 만약에 갇힐 사태를 대비해서 대피방법에 관해 미리 준비해 둡니다.
- ※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 경우 문이 비뚤어져 갇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황 10 황사 발생시 행동요령

황사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비염, 기관지 천식 등을 유발하므로 노약자, 어린이는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가합니다.

※ 황사 안전수칙



외출을 삼가한다.



외출시는 마스크, 안경 착용



외출 후 손발을 닦는다.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가정에서

- 외출을 삼가하고 외출 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을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합니다.
-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공기정화기와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합니다.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생선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하여 요리합니다.
-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가공·조리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의 실외활동을 금지하고 수업단축 또는 휴교하여야 합니다.
 - ▶ 실외학습, 운동경기 등을 중지하거나 연기합니다.

- 황사주의보 : 1시간 평균 농도가 $500\mu\text{m}/\text{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황사경보 : 1시간 평균 농도가 $1,000\mu\text{m}/\text{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제 2 장 안전사고 이렇게 대비하세요!

그림

1. 119 신고요령

◆ 119 신고내용

- 사고상황 : 불이 났는지, 아픈 사람이 있는 지 등
 - 발생장소 : 주소나 주변의 큰 건물 이름 등
 - 요령 : 침착하게 말하고 소방관이 전화를 끊기 전에 먼저 전화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 ※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합니다.

◆ 119 신고방법 : 팩스나 문자 이용시 주소 등을 미리 적어 둡니다.



119안전신고센터
(인터넷 신고)

<http://www.119.go.kr>



휴대폰 문자 신고

119



청각장애인 119신고
(팩시밀리 신고)

FAX ☎ 735-7119 (서울)

☎ 1544-9119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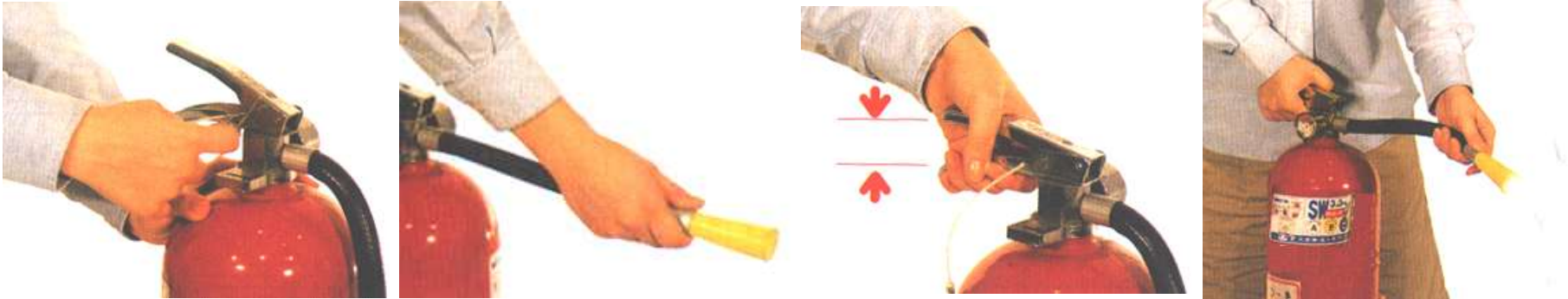
119 자동신고기
(노인·장애인용)

관할소방서 신청

2. 도움이 되는 소방시설

☞ 소화기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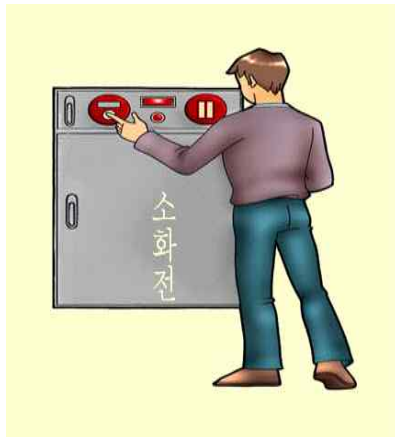
- ◆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한 손으로 소화기 몸통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손잡이 앞쪽에 있는 안전핀을 힘껏 잡아 당겨 뽑습니다.
- ◆ 출입문을 등지고 호스를 뽑아 불이 난 곳을 향합니다.
- ◆ 손잡이 아랫부분을 잡고 불이 난 곳으로 가까이 접근하고 손잡이를 움켜잡습니다.
- ◆ 불길 주위에서부터 빗자루로 쓸 듯이 골고루 분사합니다.



- ① 안전핀을 뽑는다. ② 호스를 불난 곳으로 ③ 손잡이를 움켜쥘다. ④ 골고루 분사한다.
향한다.

☞ 옥내소화전 사용법

- ◆ 소화전 안의 소방호스를 화재현장까지 끌고 갑니다.
- ◆ 소화전 안의 개폐밸브를 서서히 왼쪽으로 돌려서 열어줍니다.
- ◆ 노즐을 돌려 물을 분사하고, 불길은 가장자리에서 중심부로 물을 분사하여 진압합니다.
- ◆ 화재진압 후 개폐밸브를 잠그고 호스를 잘 말려서 소화전함에 정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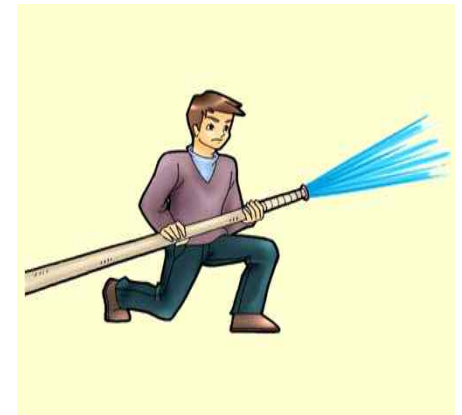
소화전에 비상버튼을 누른다.



호스를 화재현장까지 연장



개폐밸브 개방하기



노즐을 돌려서 분무하여 화재진압

※ 호스는 개폐밸브와 노즐에 항상 연결해 놓고, 꼬이지 않도록 평상시 관리를 해야 유사시 즉시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이 알아야 할 소방시설

◆ 소방시설에는 장애인이 알아야 할 소방시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중 장애인이 꼭 알아 두어야 할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난구 유도등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직통 계단의 계단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로 유도등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 및 계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신기/비상벨



화재를 알릴 수 있는 시설로 화재 시 벨이 울려 화재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을 위해 비상벨을 대신하여 화재를 인지할 수 있도록 조명이 깜박거립니다.

3. 담뭇불 안전조치

방심과 잘못된 흡연습관 등으로 인한 담뭇불 화재가 늘고 있습니다.

이불에서 담배를 피우다 화재가 났지만 거동불편으로 이를 보면서도 불을 끄지 못함

2007년 11월
거제시



- ▶ 술에 취한 채 잠자리에서 흡연 ▶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도록 한다.
- ▶ 무심코 버린 담배꽂초가 발화

담배화재 원인과 예방요령

▣ 담배화재 원인

- 담배꽂초를 아무 곳이나 버리는 행동
- 잠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잠드는 사례
- 불이 덜 꺼진 담배꽂초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
- 일부러 담뱃불을 불이 날 수 있는 곳에 버리는 행동

▣ 예방요령

- 지정된 곳에서만 담배를 피우게 해야 합니다.
- 재떨이에는 약간의 물을 담아 둡니다.
- 잠자리에서는 절대 금연해야 합니다.
- 관리자는 수시로 흡연 장소나 위험이 있는 곳을 순찰합니다.

4. 주방 안전수칙 준수

집안에서 특히 주방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혼자 사는 A씨가 거동이 불편해
주방바닥에서 휴대용 렌지로 조리를 하다가 화재가 발생함

2007년 2월
용인시



- ▶ 요리 중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 끓는물, 칼, 세제 등 많은 위험 요소가 있다.
- ▶ 주방에서는 위생수칙을 지켜야 한다.

주방화재 예방요령

▣ 주방에서의 안전수칙

- 프라이팬이나 튀김냄비 등의 사용 시 손잡이를 옆으로 돌려서 사고로 기름이나 내용물을 쏟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 냄비가 뜨거울 때는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 세제 등은 안전뚜껑이 장착된 제품을 사용하고, 칼 등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주방위생에 철저를 기하여 식중독 등을 예방합니다.

▣ 주방화재 예방

- 기름진 음식을 요리한 경우 반드시 용기를 닦습니다.
- 전기밥솥 위에 타월이나 행주 등을 말리거나 가까운 곳에 전기코드를 늘어뜨리지 않습니다.
- 전자레인지 안에 절대 금속 물질을 넣지 않습니다.
- 온도 조절장치가 있는 전기 튀김 냄비를 사용합니다.
- 주 스위치에서 세탁기나 식기세척기 같은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의 코드를 뽑습니다.

5. 전기 안전하게 사용하기

이럴 때 전기 안전사고가 납니다.



젖은 손으로 전기 제품을 만질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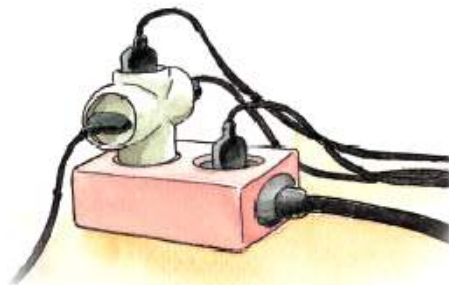
물에 잠긴 전선을 만질 때



전선을 잡고 플러그를 뺄 때



플러그를 콘센트에 제대로 꽂지 않았을 때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을 때



전선이 문틈에 끼어 있을 때

전기제품 안전하게 사용하기

▣ 전기제품 사용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예방법

가. 전열 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자리를 지킵니다.

나. 젖은 손으로 전기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을 때에는 끝까지 완전히 꽂고, 뺄 때에는 전선을 잡지 말고 플러그를 잡고 빼야 합니다.

라.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은 코드를 빼 놓습니다.

마. 전선이 문틈이나 가구에 눌리지 않도록 설치합니다.

바.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문어발식으로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 전선이 물에 잠겼을 경우에는 다가가지 않습니다.

6. 가스 안전하게 사용하기

※ 가스는 폭발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미리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



불이 붙었는지 확인



사용 후 중간 밸브 잠그기

※ 여기서 잠깐

가스는 원래 냄새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스에서 마늘 썬 냄새가 나는 것은 가스가 새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취제를 넣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가스 사용법

■ 사용 전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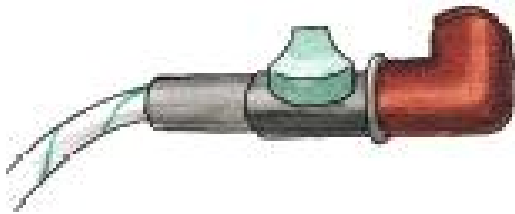
- 가스냄새가 나는지 살펴보고, 냄새가 나면 가스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 환기시킵니다.
- ※ 가스 누설시에 배기 팬을 돌릴 경우 전기 불꽃에 의해 가스가 폭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

■ 사용 중에는

-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일 때에는 불이 확실히 붙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바람이나 넘친 국물에 의해 불이 꺼지면 가스가 새게 되므로 자주 살핍니다.

■ 사용 후에는

- 반드시 점화 스위치와 중간밸브를 잠급니다.



중간밸브 열림



중간밸브 잠김

7. 질식사고 예방하기

◆ 질식 사고의 원인이 되는 물질



떡, 고구마



젤리, 사탕



차거나 뜨거운 음식



끈 달린 옷



비닐봉지 등



놀라게 해서

◆ 하임리히법



환자뒤에 선다.



손으로 배꼽과 명치를 확인



엄지손가락을 복부로 향하고 배꼽 바로 위에 주먹을 댄다.



다른 한손으로 주먹을 감싸 쥐입니다.



복부압박을 연속하여 4~5회 빠르게 밀쳐 올립니다.

질식사고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시다.

▣ 증상 및 응급처치

- 증 상 : 음식을 먹던 사람이 목을 움켜쥐고 괴로워하지만, 말과 기침을 못하고 호흡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심한 경우 청색증이 나타납니다.
- 응급처치 : 조금이라도 말과 기침을 할 때에는 재채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재채기를 할 수 없다면 주변사람에게 119에 신고토록 도움을 요청하고 하임리히법을 실시합니다.

▣ 하임리히법 요령

- 환자의 등 뒤에 서서 한 팔로 환자의 허리를 감쌉니다.
-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엄지를 환자의 배꼽 바로 위와 흉골의 바로 아래에 둡니다.
- 다른 한 손으로 주먹 권 손을 감싸고, 주먹으로 부상자의 복부를 누르면서
- 빨리 위로 밀어 올리되 이물질이 나오거나 의식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 실시합니다.
- 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매 번 동작이 분명하고 분리되도록 실시해야 합니다.

8. 자동계단 및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자동계단(수평보행기) 및 승강기에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



※ 자동계단 및 수평보행기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타다가



※ 승강기에서

승강기 안에서 뛰며 장난치다가



손잡이 밖으로 몸을 내밀다가



닫히는 문에 손을 넣어 장난치다가



단추를 누르며 장난치다가

인천 부평역 지하철 자동계단에서 장애인이 계단을 밟아서 내려오다 핸드레일과 발판 사이에 갇

2005년 8월
인천

자동계단(수평보행기) 및 승강기 안전 사용법

▣ 자동계단(수평보행기)

- 가. 의복, 신발 끈 등이 틈새에 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나. 타고 내릴 때 핸드레일을 꼭 잡고, 핸드레일 밖으로 머리나 팔을 내밀지 않습니다.
- 다. 노란색 안전선 안쪽에 타야 하며,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하여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승강기

- 가. 조작반의 인터폰, 비상정지스위치 등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않습니다.
- 나. 운행 중 승강기 내에서 심한 장난을 하지 않습니다.
- 다. 승강기 출입문에 기대지 않습니다.

▣ 이럴 땐 이렇게

- 가. 수평 보행기에서 옷자락이 발판 틈새에 끼었을 때
 - 큰소리로 도움을 청하여 비상단추를 눌러 수평보행기를 정지 시킵니다.
- 나. 승강기가 갑자기 ‘덜컹’하는 소리와 함께 멈추어 섰어요.
 - 휴대전화가 있다면 119로 신고하고, 승강기 안의 비상 단추를 눌러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9. 교통 안전수칙

길을 건널 때에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을 탑승한 차량의 교통사고로

환자는 경미한 부상이었으나 시각장애인으로

2008년 4월
이태원동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춘다. 신호등의 녹색불(음향신호기)을 확인하고 약 3초를 기다린다. 주변 사람이 건너는 것을 확인하며 길을 건넌다.

▣ 교통 안전수칙

- 가. 버스를 이용할 때는 버스가 완전히 멈춘 후에 내리고, 안전하게 인도로 걸어가야 합니다.
- 나. 넘어짐을 막기 위해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내리며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하철 선로 위에 떨어졌을 때



시각장애인이 승강장에서 대기
중
승강장 아래로 추락하여 허리와
좌측팔에 타

2006년 9월
은평구

침착하게 승강장 밑, 벽면 여유공간에 엎드립니다.
큰소리를 지르거나, 소리를 낼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변인은 역무원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기다립니다.

▣ 지하철 안전수칙

- 가. 열차는 안전선 뒤쪽 승차위치에서 기다립니다.
- 나. 승·하차 시 승강장과 열차 사이 공간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다. 열차가 완전히 정차한 후 승객이 다 내린 다음에 승차합니다.
- 라. 승강장에서 밀치거나 뛰는 것을 삼가고, 안전펜스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 3 장 생활 속 안전점검

그림

1. 장애인을 위한 위험요소 사전체크

장애인들에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장소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집안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를 적지 않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집 안이나 주변에서의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연번	주요 체크 사항	CHECK
1	과거에 사고를 일으켰던 유사한 요인	<input type="checkbox"/>
2	집안의 인테리어를 살리기 위해 무시되는 안전사고 요인	<input type="checkbox"/>
3	사소하기 때문에 간과되는 위험요소	<input type="checkbox"/>
4	집안에서 활동을 할 때 좀 더 개선된 안전한 방법	<input type="checkbox"/>
5	이물질에 대한 기도폐쇄, 낙상, 화상, 상처 그리고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	<input type="checkbox"/>
6	유독성 물질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고요인	<input type="checkbox"/>
7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신체적으로 특이한 행동	<input type="checkbox"/>
8	단순한 사고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곳	<input type="checkbox"/>

2.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그 위험성을 가족에게 알림과 동시에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 피난 통로상의 장애물 제거,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금지,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 고무매트 설치 등으로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위험요소들이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장애 유형별 대처방법과 행동요령을 생각하고 있는가?
- 사고발생 위험요소들을 생각하고 가족구성원이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 이물질에 대한 기도폐쇄, 낙상, 화상, 상처 등 장애인에게 흔히 발생되고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가?
- 위험요인들을 제거하고, 더 안전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
- 수리나 보완을 통해서 더 안전하게 할 수는 없는가?
- 가족에게 위험성을 숙지시켜 사고요인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

3. 장소별 사고 예방대책

안전사고는 장애 유형별 특성에 따라 대처방법을 발견하고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정이 되었으면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집에서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시킬 경우, 행동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 욕실(화장실) : 장애인이 집안에서 주로 사고를 당하는 장소는 물기가 많은 욕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욕실을 이용할 때 늘 주의를 기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 전기제품은 욕실 밖에서 사용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 욕실의 벽이나 욕조 바로 옆, 그리고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면 비교적 안전하게 욕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부나 욕실 입구의 조명이 밝아야 합니다. 조명이 어두울 경우 바닥의 물기를 잘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 욕실 바닥에 고무제품이나 크고 두꺼운 타올 제품을 깔면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현관** : 대부분 아파트의 현관 바닥은 미끄럽고, 지체장애인들이 신발을 신고 벗기에 편리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신발이 많을 경우 이동할 공간이 작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 현관 벽에 손잡이를 설치하면 신발을 벗고 신을 때 편리함을 더해 줄 뿐 아니라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현관문에 지팡이의 고무부분이나 신발이 끼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 현관문을 비롯한 다른 문들의 손잡이가 조그만 원통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손이나 팔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기 편리한 모양의 손잡이로 바꿔 줍니다.
- 현관문을 들어서거나 나갈 때 눈에 잘 띄지 않는 조그마한 물건들을 밟을 경우 쉽게 낙상하게 되므로 방치된 물건이 있는 경우 밟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비 오는 날은 현관 바닥에 물기가 많이 있습니다. 고무매트를 깔아 놓거나 임시로 골판지 같은 두꺼운 종이제품을 깔아두면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주방 : 주방을 사용할 때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잠재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예상치 못한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자나 휠체어에서도 조리를 할 수 있도록 주방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손이나 팔에 장애를 가졌을 경우 음식물이나 주방기기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견고한 보조도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 음식을 하면서 튀는 물기나 기름방울들은 바닥을 매우 미끄럽게 만듭니다.

■ 칼이나 가위, 또는 접시나 무거운 냄비가 싱크대에서 떨어져 발등에 충격을 줄 경우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날카롭거나 무거운 주방기기들을 안전하게 정리해 둡니다.

■ 손잡이가 긴 냄비로 조리할 경우 손잡이가 조리대 벽면을 향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손잡이 부분을 통로 쪽으로 놓고 요리를 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질 경우 손잡이를 건드리게 되고 뜨거운 냄비로 인해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 **방과 거실** : 장애인들이 안락하게 지내고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낮은 곳이 방과 거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 방과 거실의 바닥에 비닐제품 장판이 깔려 있는 경우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바닥에 카펫을 고정시켜 깔면 미끄럼을 방지할 수도 있고 낙상의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실내화를 신으면 낙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모서리가 뾰족한 가구가 있다면 바꾸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모서리 부분에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도구나 재료를 부착해야 합니다.

▣ 집안에 있는 계단의 디딤판에는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바퀴 달린 의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방이나 거실에 물이나 음료수 등을 엎질렀을 때에는 즉시 닦아 내야 합니다.

▣ 단추나 핀 등 조그만 물건이 바닥에 있으면 즉시 치워야 합니다.

▣ 온풍기나 난로 등을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특별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4. 장애인 재난대피계획 점검표



개인별 재난대피계획 점검표

성 명 : 핸드 폰 :

집 전 화 : 이 메 일 :

주 소 :

맹인안내견 소유 : 예 아니오

거주자의 재난인지 방법

재난상황의 종류	재난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치
화 재
지 진
홍 수
태 풍
기 타

재난 인지를 위한 장치

	예	아니오	해당없음	추가의견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재난경보장치가 있는가? (비상벨, 시각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이 각 재난별 경보장치의 작동원리와 위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재난 신고시 긴급전화번호가 전화주변이나 주민 게시판 등 보기 쉬운 곳에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청각장애인이 신고할 방법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구내방송이 비상체계로 작동한다면, 비상경보 메시지가 우선적으로 방송되는 시스템인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비상메시지를 지시하는 특별한 신호(소리, 빛, 대피유도자 등)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거주자의 피난로 찾기

	예	아니오	해당없음	추가의견
이용 가능한 출구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있다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대피 후 집결 장소는 어디인가?				
빌딩 탈출경로 및 임시대피공간(발코니, 옥상 등)을 표시해 둔 대피 평면도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옥외 대피시 실수로 차도에 진입하지 않도록 경고해 줄 수 있는 안전보호장치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임시대피공간의 개방된 쪽에 추락 방지용 가드레일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임시대피공간이 외부로부터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비상구에는 시각, 촉각 등으로 인지 가능한 “비상구” 표시가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피난구 유도등 주변에 밝게 빛나는 표식, 화면, 물체 등이 있는가?(특히 저시력자에 대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피난로 관리

	예	아니오	해당없음	추가의견
피난로에 장애물 등은 제거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피난로가 막다른 길목으로 유도될 만한 곳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방화문 이외의 실내의 모든 문들은 특별한 지식 없이 쉽게 열리거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출구에 있는 출구 표시가 보이는데 방해를 받거나 시각, 청각, 점자 등의 표시가 가려지지 않는 장애물은 제거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긴급피난로에 공사 등으로 인한 장애물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각 이용 가능한 통로들은 그 시설에서 영구적인 부분인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이동통로가 충분히 평탄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자들에게 적절한 계단이나 경사로가 제공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건물 이동경로들은 직접적으로 외부나 인도 등으로 연결되어져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대피를 위한 도우미 및 보조기구

	예	아니오	해당없음	추가의견
어떤 장치나 보조로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구체적인 장치나 보조로 무엇이든 어디에 있는가?				
대피를 하기 위해서 도우미가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도우미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도우미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이수 받아야 할 훈련은 완료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도움이 필요할 때 도우미와 만날 장소는?				
어느 때 주로 도우미에게 연락이 필요한가?				

몇 명의 도우미가 필요한가? _____

위기시 도우미에게 연락하는 방법은? _____

	이름	집전화	핸드폰	이메일
도우미 1				
도우미 2				

맹인 안내견

	예	아니오	해당없음	추가의견
장애인이 안내견을 다루는데 대한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은 필요한 경우 안내견을 남겨두고 가야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것에 대해 생각해보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안내견이 망설이거나 방향을 잃었을 때 안내견을 도울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				
안내견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긴 사본을 가졌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안내견을 보호하기 위한 음식과 지원품들은 어디에 두었는가?				

부 록

그림

1. 장애인 안전교육의 방법

장애인에 대한 안전교육은 장애유형별 각기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러 가지 재난 중 화재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동반되어 피해의 후유증이 상당히 크고 사회 전반적인 불안요소를 가중시키므로 여기서는 화재와 관련된 소방안전교육을 중심으로 교육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소방안전교육 준비

소방안전교육은 교육 준비단계에서 사전에 시설이용자의 특성과 시설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시설 설립배경 등의 자료를 파악하여 교육 중 관심사를 이야기 합니다. 특히 시설 입소대상자의 민감한 부분은 피하여야 합니다. 시설의 특성상 다양한 공동주거 시설이 산재하고 노약자, 장애인 생활시설에서는 화재 발생시 정신적·신체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자력대피가 어려워 대형 인명피해가 뒤따른다는 것을 생활자들과 관리자에게 고취시켜야 합니다.

1) 화재에 대한 경각심 고취

화재발생의 주된 원인은 사람들의 방심에 의한 실화로서 밤중에 주로 일어납니다. 계절별로는 겨울철뿐만 아니라 봄에도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마치 겨울철만이 불조심의 전부인 듯한 방심으로 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스스로가 항상 화재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갖고 불조심하는 습관과 교육을 받는 목적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2) 대피훈련의 정례화

소방안전교육은 체험이 중요합니다. 강당에서만 하는 이론교육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 피난기구를 사용해보고 피난로를 숙지하여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대피유도자(관리자, 사회복지사)의 동참은 실제상황에서 적응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대피시 사회복지사의 담당별 조 편성으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념하여 실시합니다.

3) 대피유도자(사회복지사)의 역할

- 수용 시설물에 대한 현장 답사로 피난시설의 관리상태 확인, 비상계단의 장애물 제거, 비상구 개방 확인 및 피난로 숙지로 비상시의 경우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피난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 유사시 당황하거나 사용방법 미숙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대피훈련을 철저히 하여 재난으로부터 수용자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담당별 임무를 사전에 지정하여 임무에 의해 행동하며 대피장소, 임무내용 등을 숙지하여 사고 발생 시 임무사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지휘체계를 단일화하여 현장 지휘체계를 갖추고 계통에 따라 보고 또는 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관련 기관으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출동한 책임기관에게 작은 정보라도 빠뜨리지 않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대피훈련 (질서정연하고 안전하게 대피하기)

- 각 조별로 지정된 층에 입실 후 대기토록 하고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휘자는 입실 상황 확인 후 입실자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최대한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 대피방법이 결정되면 신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고 질서 있게 행동하도록 유도합니다.
- 극심한 공포감을 갖거나 우는 사람은 한 사람이 동행하여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 조별 지정된 경로를 통해 정해진 방법으로 질서 있게 대피하고 지휘자는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전체상황을 통제합니다.
- 각 조는 피난시 정형화된 경로를 통해서만 대피훈련을 하지 말고 건물 구조의 특성에 따라 대응화된 피난로를 구상하여야 합니다.
- 조장(사회복지사)은 조원 전체가 약속장소로 대피한 것을 확인하고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 완강기 하강 등 어려운 대피유도는 자신감 있는 사람부터 시도 하도록 하고, 시선을 밑으로 두지 말고 위를 보도록 유도합니다.

나.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내용

화재시 장애인의 경우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을 주위에 알리고 침착하게 유도자의 지시에 따를 것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이들 행동의 특수성으로 인한 자력대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대피 중 공포감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유발되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합니다.

1) 화재전파

- 화재전파하는 방법을 사회복지사(대피유도자) 및 장애인이 직접 실시해 봅니다.
- 시각장애인은 육성으로 하는 화재전파를 직접 대피유도자가 시범을 보이고 장애인이 따라서 배우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방시설(비상경보)을 사회복지사(대피유도자)가 직접 사용해 보고 비상벨 및 시각경보기가 장애인의 눈과 귀에 익을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2) 119신고방법

소방서로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은 화재, 구조, 구급 등 모든 긴박한 상황이므로 정확하고 간결하게 의사를 전달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어느 때 보다도 침착성이 요구됩니다.

전화, FAX, 인터넷 등을 이용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특히 팩스나 핸드폰 문자 이용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미리 적어두면 더욱 신속하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시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사고발생 장소
- ② 간단한 상황 설명
- ③ 사고장소 내의 사람의 유무
- ④ 신고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 ⑤ 정확한 사고발생 장소 및 용도

3) 대피 시 기본 행동방법

- ① 사전 피난로를 확인하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 ② 피난설비(유도등, 피난기구)를 이해하고 비상구를 확인합니다.
- ③ 개인행동을 금지하고 관리자 또는 사회복지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합니다.
- ④ 사회복지사는 각 실의 이용자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며 비상구로 유도하여야 합니다.
- ⑤ 이상행동자는 다른 사람과 함께 행동시 동요를 일으키므로 직접 유도하여야 합니다.
- ⑥ 위험상황을 먼저 발견한 자는 사람에게 신속히 전파하여야 합니다.
- ⑦ 인명대피의 선두에는 체력이 강인하고 침착하며 평소 자신감이 넘치는 자를 앞세워 뒤따르는 이용자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 ⑧ 대피자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행동을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4) 화재 시 대피방법

- ① 침착성을 가지고 공포감을 극복하고 주변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② 화재건물 내의 문은 갑자기 열지 않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손잡이나 다른 부위를 만져보고 열이 느껴지면 열지 말아야 합니다.
- ③ 피난할 때 자세를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보호해야 합니다.
- ④ 불이 난 곳의 반대방향에 있는 피난통로와 비상구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⑤ 정확하고 침착한 상황의 판단 없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 ⑥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⑦ 귀중품을 가지고 나오려고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⑧ 고립된 경우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가 있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2. 불과 화재의 개념

가. 불과 소화

① 불의 3요소

불은 열과 빛을 생성하는 ‘연료의 급격한 화학 반응(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연소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 연료(가연물), 열원(점화원), 산소(공기)등 3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불의 3요소’라고 합니다.

② 소 화

불의 3요소 중 한 가지 이상 제거되면 불이 꺼지게 되는데 이를 ‘소화’ 라고 합니다. 소화 방법에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불연성 가스로 산소농도를 낮추는 질식소화, 탈 수 있는 가연물을 제거하는 제거소화, 물을 뿌려서 온도를 낮추는 냉각소화가 있습니다.

나. 화재의 종류와 대처방법

① 전기화재 : 전기는 화재 위험이 높다가 보다 안전 관리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 대처방법 : 전기기구에서 불이 났을 때, 먼저 전원 플러그를 빼고 이불 등을 덮어서 불을 끕니다. 또한 전류로 인해 감전될 수 있으므로 물을 부으면 안 됩니다.

② 가스화재 : 가스는 생활에 유용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폭발이나 중독 등 큰 피해를 줍니다.

♣ 대처방법 : 가스레인지 위 냄비에 불이 붙었을 경우 가스레인지의 점화 스위치나 가스 밸브를 즉시 잠그고 소화기를 사용해 불을 끕니다.

③ 유류화재 : 유류는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으며, 한 번 불이 붙으면 액체 상태에서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확대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 대처방법 : 기름에 물을 붓게 되면 화재가 확산되므로 질식소화를 하여야 합니다.

3. 소방서에서 하는 일

소방관은 화재를 예방 진압하고, 각종 재해가 생겼을 때에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홍수, 건물 붕괴, 가스 폭발 등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은 부분을 관리하는 것도 소방관의 중요한 일입니다.

- ① 화재 예방 :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사람들에게 화재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② 화재 진압 :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 현장에 신속히 도착하여 인명을 구하고 화재를 진압합니다.
- ③ 구급/구조 :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소방서(119)로 신고하면 신속히 출동하여 소중한 인명을 구조하여 응급 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여 생명을 구합니다.

4. 서울시민안전체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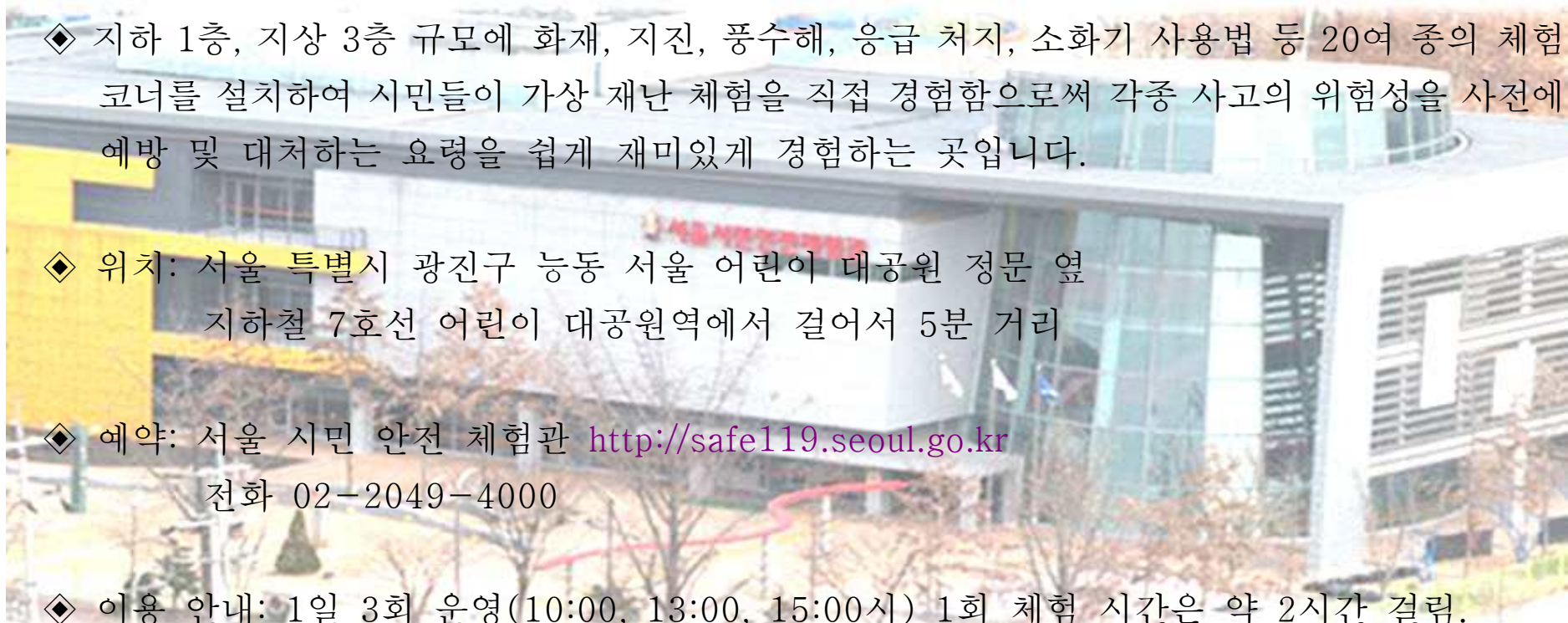
◆ 화재나 지진, 풍수해 등 각종 재난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일반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재난 체험관입니다.

◆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화재, 지진, 풍수해, 응급 처치, 소화기 사용법 등 20여 종의 체험 코너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가상 재난 체험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각종 사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 및 대처하는 요령을 쉽게 재미있게 경험하는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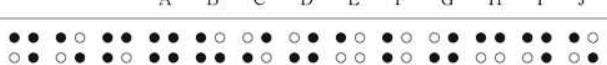
◆ 위치: 서울 특별시 광진구 능동 서울 어린이 대공원 정문 옆
지하철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 예약: 서울 시민 안전 체험관 <http://safe119.seoul.go.kr>
전화 02-2049-4000

◆ 이용 안내: 1일 3회 운영(10:00, 13:00, 15:00시) 1회 체험 시간은 약 2시간 걸림.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및 1월 1~2일이며, 공휴일은 정상 운영함.



한글점자보기

달소리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자 차 카 터 표 흥
홀소리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반 침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오 자 차 카 터 표 흥
약 자	 가 을 은 의 예 에 예 와 워
	 인 옥 연 영 열 연 을 열 외 울 온 용 운 사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리므로 그런데 그리고
숫 표	 숫자 1 2 3 4 5 6 7 8 9 0
부 호	 ? ! + - = × ÷ “ ” () , *
영어표	 알파벳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안전교육교수학습매뉴얼 (서울소방재난본부)
 Emergency Evacuation Planning Guid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NFPA, 미국방화협회)
 Fire Risks Series (FEMA, 연방재난관리청)

- Fire Risks for the Blind or Visually Impaired
- Fire Risks for the Deaf or Hard of Hearing

 소방방재청 <http://www.nema.go.kr>
 서울소방재난본부 <http://fire.seoul.go.kr>

[도와주신 분들]

서울 맹학교 오창우 선생님
서울 맹학교 임동규 선생님
서울 농학교 서기홍 선생님
서울 농학교 장진권 선생님
(주)보이스아이 박호성 팀장

[집필진]

안전교육팀장 김선영
교육주임 박정경
교육일반 김덕영
교육관리 신성현

발행인 :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정정기

편집인 : 안전지원과장 이상구

발행 : 서울소방재난본부 <http://fire.seoul.go.kr>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집길 12 (예장동 6-7)
안전지원과 안전교육팀 TEL 02)3706-1633 FAX 02)3706-1619 1sshpyh@seoul.go.kr

2008년 12월 발행



장애인 안전교육 교범

